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9. 2.(수) 16시

전 세계 한글학교에 'K-북' 7천 권 보급...차세대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

- 재외동포청·한국출판문화진흥원 협약...70개 한글학교에 우수 한국도서 지원
- 문학나눔도서 보급으로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과 교육환경 개선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원장 김승수)과 협력해 올해 전 세계 한글학교 70곳에 문학나눔도서 중심의 우수 한국도서 7천여 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사업은 해외 한글학교와 재외동포 사회가 꾸준히 요청해 온 한국어·역사·문화 분야 도서와 교육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양 기관은 9월 2일 재외동포청에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, 재외동포사회의 독서문화 확산과 차세대동포의 한국어·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.
-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 한글학교를 발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,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자체 예산으로 문학나눔도서 중심의 우수 도서를 선정해 해외 현지로 직접 배송한다. 양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한글학교가 필요한 도서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.
- 이번 사업으로 전 세계 한글학교 70곳에 아동·청소년 도서, 소설, 수필 등 문학나눔도서로 선정된 우수 한국도서 7천여 권이 지원된다.
- 첫 번째 지원 대상 지역은 유럽, 러시아, CIS지역으로 향후 지역별로 순차 지원할 예정이다.
- 오는 10월 초까지 도서 선정과 수요조사를 마친 뒤 10월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순차 배송할 예정이다.

-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한국 도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한글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 “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우수 한국도서를 통해 우리 문학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가겠다”고 말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희경 (032-585-3207)
		담당자	사무관 박시연 (032-585-3208)

